

김병현, 호주서 야구인생 5막 연다

멜버른 에이스 영입 발표...미국→일본→한국→도미니카서 활약
호주리그 8개팀 내년 1월까지 경기...김진우는 질롱 코리아에 새등지



김병현

“핵 잡수함” 김병현(39)이 호주로 간다. “내 몸이 허락할 때까지 도전하겠다”는 김병현의 야구는 진행형이다.

호주야구리그(ABL) 멜버른 에이스가 지난 29일 구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김병현의 영입을 발표했다.

멜버른 에이스는 김병현의 사진과 함께 “한국 팀 질롱 코리아가 있지만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한국 선수 중의 한 명을 영입했다. 월드시리즈의 영웅을 환영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2016년 전력 외 선수가 되면서 고향팀 KIA 타이거즈를 떠났던 김병현은 새로운 마운드에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김병현이 서는 5번째 마운드이기도 하다.

성균관대 재학시절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유니폼을 입은 김병현은 메이저리그 394경기에 나와 4.42의 평균자책점으로 54승 60패 86세이브를 기록한 전적 ‘벽리거’다.

특유의 뱀직구와 패기 넘치는 피칭으로 눈길을 끈 그는 2001년과 2004년에는 각각 애리조나와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으로 두 차례 월드시리즈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2010년까지 미국에서 활약한 그는 2011년 일본 라쿠텐 골든이글스로 건너가 부활을 노렸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 2012년 넥센 히어로즈 소속으로 KBO리그에 첫선을 보였다.

이후 김병현은 2014년 트레이드를 통해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김병현이 목표로 했던 ‘내 공’을 찾지 못하고 지난 2016시즌이 끝난 뒤 보류 선수에서 제외되면서 새 팀을 찾게 됐다.

국내에서 새 등지를 찾지 못한 김병현은 지난 2017년 겨울 도미니카공화국으로 건너가 윈터리그를 뛰었다. 중도에 짐을 싣 그는 지난 2월에는 광주일고 후배들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던 일본 후쿠오카로 건너가 ‘특별 코치’로 활약하기도 했다.

갈림길에 섰던 김병현은 다시 야구의 길을 걷는



김진우

새 도전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잘했던 게 야구다. 나 자신을 표현했던 게 야구이기도 하는데, 나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고 아쉽다. 뇌졸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멈출 수 없는 도전을 이야기했다.

얼마 전 월드시리즈가 끝나면서 다시 조명을 받은 김병현은 ‘옛 영광’을 뒤로하고 또 다른 야구 스토리를 쓰겠다는 각오다.

“월드시리즈는 잠깐 봤다. 가을만 나오면 내 이름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다.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웃은 김병현은 “월

드시리즈 반지보다는 한국시리즈 반지를 끼지 못한 게 아쉽다. 한국에, 그리던 고향에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게 돌아보면 제일 아쉽다. 여전히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 때론 뭘 해놓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똑같은 것 같아서 속스럽다. 호주에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ABL은 한국인 선수로 구성된 질롱 코리아 등 8개 구단으로 시즌을 치른다. 멜버른은 11월 9일 질롱코리아와 평가전을 가진 뒤, 16일 캔버라 카발리와 시즌 개막전에 나선다.

한편 올 시즌을 끝으로 KIA 유니폼을 벗게 된 김진우(36)도 호주로 건너가 질롱 코리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택의 길을 열어주신 KIA 프런트와 감독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시 재기해서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겠다”고 KIA를 떠나는 심경을 밝혔던 김진우는 “야구를 계속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가서 실력으로 보여준다면 다시 한국리그로 복귀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한다”며 질롱 코리아에서의 새 출발을 알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정우영 1군 데뷔 눈 앞

스페인 발렌시아·독일 뮌헨 구단 컵대회 앞 출전명단 발표

한국 축구 기대주 이강인(17·발렌시아)과 정우영(19·바이에른 뮌헨)이 컵대회 경기를 앞두고 나란히 1군에 합류했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 구단은 30일(한국시간)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레이)

에브로와 32강 1차전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강인의 이름을 소개했다.

발렌시아 구단의 기대는 크다. 구단은 같은 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강인의 팀 훈련 모습을 따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

오랜 기간 유스팀에서 실력을 키운 이강인은 지난 프리시즌 경기부터 1군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며 분위기를 익혔다.

지난 7월 스위스 로잔 스포르와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 입단 7년 만에 1군 무대에 출전했고, 이후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 잉글랜드 레스터시티와 연습 경기에 연이어 출전했다.

8월 12일 독일 레버쿠젠과 프리시즌 경기에서 1군 첫 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프리시즌 경기는 모두 연습 경기라 정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날 정우영도 1군 합류 소식을 알렸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명문구단 바이에른 뮌헨은 31일 독일 오스나브뤼크 오스나텔 아레나에서 열리는 독일축구협회(DFB)포칼 16강전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출전 명단에 정우영을 포함했다.

정우영은 인전 대견고 재학 중이던 지난해 뮌헨으로 이적했다. 그리고 지난 7월 프리시즌 유벤투스와 경기에 교체 투입해 1군 무대를 처음 밟았다.

지난달엔 세계 최고의 클럽 축구 대회인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벤피카전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강인

정우영

이청용 오랜만에 존재감

獨 분데스리가2 보훔 홈경기 도움 3...이적 한달만에 첫 공격 포인트

독일로 무대를 옮긴 이청용(보훔)이 ‘도움 헤트 트릭’으로 부활의 기지개를 폈다.

이청용은 30일 독일 보훔의 루르슈타디온에서 열린 안 레겐스부르크와의 2018-2019 독일 분데스리가2(2부 리그) 홈경기에서 한꺼번에 3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뛰다가 지난달 독일 보훔으로 등지를 옮긴 이청용의 독일 무대 첫 공격 포인트이다.

보훔에서 네 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이청용은 팀이 0-1로 끌려가던 후반 1분 로베르트 테세의 동점 골을 합작하며 첫 공격 포인트를 작성했다.

이어 후반 9분과 20분엔 루카스 힌데르저와 잇따라 콤비 플레이를 펼쳐 역전 골과 쐐기 골에 도움을 기록했다.

보훔은 그러나 두 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 32분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실점한 데 이어 후반 추가시간 동점 골을 허용해 3-3으로 비겼

다. 팀의 승리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이청용으로서 오랜 부진의 뚫고 부활을 신호탄을 쏜 경기였다.

네 경기 연속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며 완벽한 몸 상태를 보여줬고, 팀의 세 골에 모두 관여하며 공격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2009년 잉글랜드 볼턴을 통해 유럽 무대에 진출한 이청용은 2015년부터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뛰었으나 최근 1년여간 주전 경쟁에서 밀려 출전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다.

소속팀에서 경기를 뛰지 못한 탓에 국가대표팀에서도 멀어졌다.

결국 지난 6월 크리스털 팰리스와 결별한 이청용은 한때 K리그 복귀설이 돌기도 했으나 독일로 무대를 옮겨 계속 유럽 리그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애 쓰지마”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조엘 엠비드(오른쪽)가 30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웰스파고센터에서 열린 2018~2019 미국프로농구(NBA) 애틀랜타 호크스와와의 홈경기에서 볼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